

국립공원 방문의 제한요소 및 타협전략[†]

홍성권* · 장호찬** · 이석호*** · 김재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환경과학전공

**국립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부 관광학과

***동국대학교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Constraints and Negotiation Strategies of National Park Visitors

Hong, Sung-Kwon* · Jang, Ho-Chan** · Lee, Seok-Ho*** · Kim, Jae-Hyun*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Dept. of Touris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ept. of Tourism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 concept to the travel context, especially for traveling in national parks. More specifically, it tries to identify how constraints and negotiation impact a person's travel behavio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the people who intend to visit the national parks for their summer vacation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panel study, which surveyed the same set of people before and after their trip. Among 527 samples, 39.7% traveled what they planned without any changes. 24.7% did not travel or postponed their trip, and 35.7% enjoyed their vacation but with changes of destination, time or travel periods. These results support that people may use negoti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eir constraints in a travel context.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constraints on travel behavior among the three groups. The results also confirm that people have to overcome intra-, inter-, and structural constraints for visiting the national parks. Thu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concepts of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 is applicable to the travel contexts. Because of its exploratory characteristics, several limitations and cautions were raised.

Key Words : Constraint, Negotiation Strategy, National Park

[†] : 이 논문은 2004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Kwon Hong,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Tel : +82-2-450-3745, E-mail : skhong@konkuk.ac.kr

1. 서론

제한요소(constraint)의 개념적 정의는 “원하는 대안의 성취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으로(Jackson and Searle, 1985), 참여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여가분야의 전통적 주제이다. 이 분야에서는 제한요소를 (1) 내적(internal), 외적(external) 제한요소(Francken and van Raaij, 1981), (2) 개인적(intra-personal), 개인간(interpersonal) 및 구조적(structural) 제한요소(Crawford and Godbey, 1987), 또는 (3) 선행(antecedent) 및 개입(intervening) 제한요소(Henderson et al. 1988)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한요소 연구의 획기적 발전은 Crawford and Godbey(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전 연구들은 특정 여가에 대한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요소의 유무에 따라 참여가 결정된다고 가정해, 구조적 제한요소가 연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조적 제한요소 이외에도 개인적 제한요소 및 개인간 제한요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세 개의 제한요소와 선호 및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Henderson et al.(1988)은 개인적 및 개인간 제한요소를 통합하여 선행 제한요소와 개입 제한요소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개입 제한요소는 Crawford and Godbey(1987)가 분류한 구조적 제한요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Henderson et al.(1988)은 선행 제한요소가 개입 제한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개입 제한요소는 여가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Jackson(1990)은 선행 제한요소가 특정 여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며 개입 제한요소는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 후, Crawford et al.(1991)은 제한요소, 선호 및 참여의 관계를 하나로 통합해 위계구조모형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특정 여가에 참여하려면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개인적, 개인간 및 구조적 제한요소를 차례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1) 제한요소가 있더라도 타협(negotiation)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면 여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2) 개인적 제한요소를 극복해야 특정 여가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며, 개인간 제한요소를 극복한 후 구조적 제한요소를 극복해야 여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제한요소와의 타협 개념은 왜 이전의 연구에서 제한요소와 여가 참여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는지(Kay and Jackson, 1991), 심지어 제한요소가 여가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Shaw et al, 1991) 설명해 주었다. 그 후, Jackson and Rucks(1995)와 Henderson et al.(1995)은 구체적인 타협전략의 종류를 조사하였고, Hubbard and Mannell(2001)은 제한요소와의 타협뿐 아니라 동기도 참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제한요소는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타협전략을 사용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참여를 높이는 양면성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 동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타협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는 동기의 영향을 받았다.

관광분야에서도 관광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요소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왜냐하면, 특정 관광지의 방문이란 그 지역 방문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비용간의 교환(trade-off)이기 때문이다(Tian et al., 1996). 구체적으로, 선택세트모형(choice sets model)에 의하면 최종목적지는 제한요소의 영향을 받아 후기고려대상지(late consideration set)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Um and Crompton, 1992; Ankomah et al., 1996), 제한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otha et al., 1999).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개인적, 개인간 및 구조적 제한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 냈을 뿐(Pennington-Gray and Kerstetter, 2002) 제한요소와의 타협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아 이 분야의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방문자들은 제한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제한요소들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 그리고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제한요소와의 타협전략의 종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구조적 제한요소 이외 개인적 및 개인간 제한요소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과 각 제한요소들이 공원방문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밝히며, (2) 타협전략의 사용 여부가 공원방문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집단별로 사용하는 타협전략의 종류 및 영향력 정도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II. 제한요소와의 타협전략(Negotiation Strategy)

전통적으로 여가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 이유는 “돈 부족”과 “시간 부족”이었다(Jackson and Searle, 1985). 그러나, 제한요소와의 타협 개념이 제시되었던 시기에 수행되었던 Kay and Jacks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72%의 응답자들은 원하는 여가활동 또는 활동빈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제한요소들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을 지속하였다. 이 연구에서 타협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가에 참여하기 위해 타협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 연구 중의 하나이다. “돈 부족”이 제한요소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11%만이 여가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며, 60%의 응답자들은 참여횟수를 줄였으며 11%는 여가를 위해 저금을 하였다. “시간부족”이 제한요소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71%는 여가시간을 줄인 반면 27%는 집안일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협전략의 구체적 종류와 역할은 Jackson et al. (1993)이 타협전략이 인지적(cognitive) 전략과 행위적(behavioral)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수행되었다. Samdahl and Jekubovich(1993)은 사람들이 “동반자와 자유시간을 맞추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여가의 질을 조절하며”,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집안 일이 많으면 다른 종류의 여가에 참여하거나”, “제한요소를 하나의 일상 생활사로 인정함으로써 제한요소를 제한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타협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고, Jackson and Rucks(1995)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행위적 타협전략(87.8%)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전략이란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있어도 제한요소로 인해 참여가 어려우면 선호와 제한요소간의 인식 차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예를 들어, 60대 남자가(제한요소) 에어로빅(선호)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젊은 사람들과의 나이 차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에어로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위적 전략이란 기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장업무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남으로써 에어로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Henderson et al.(1995)은 제한요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협전략의 구사방법에 따라 응답자들을 수동적 계층(passive responders), 성취계층(achievers)과 노력계층(attempters)으로 분류하였다. 수동적 계층은 제한요소를 받아들여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며, 성취계층은 제한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참여의 횟수를 줄이거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집단이며, 노력계층은 원하는 여가에 참여는 하지만 변형된 상태로 참여하는 집단이다.

III.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제한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관광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항목과(Um and Crompton, 1992; Tian et al., 1996; Botha et al., 1999), 연구자들이 5곳의 국립공원 관리자들에게 공원방문 제한요소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결정하였다. 국립공원은 물론 관광분야에서도 제한요소 관련 연구는 소수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개인적, 개인간 및 구조적 제한요소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각 제한요소별로 4개씩 선정하였다. 공원방문자들이 구사하는 타협전략 역시 국내에서는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전략인 방문장소 변경, 방문시기 변경, 방문기간 변경을 사용하였다(Jackson et al., 1993; Samdahl and Jekubovich, 1993; Henderson et al., 1995; Jackson and Rucks, 1995).

2. 연구대상지 및 자료수집

2003년도 숙박관광객수가 많은 국립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우선 선정하되(<http://www.npa.or.kr/>), 자원성이 다른 공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라산과 경주로 결정하였다. 국립공원은 2000년도 방문자가 약 2천 4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적인 관광지이어서, 응답자들은 국립공원을 다른 휴가지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상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특정 국립공원에 대한 방문의도를 조사한 후 실제로 그 공원을 방문하였는지를 2차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는 종단조사(longitudinal design)의 한 종류인 패널식 조사(panel study)로 수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형적 휴가철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란 점을 감안해 1차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은 휴가철 전인 2003년 6월 25~7월 10일 사이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Research International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면접하여 수집하였으며, 2차 자료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 2일~9월 6일 사이에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조사로 수집하였다. 1차 조사의 응답자들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연구대상지 중 한 곳을 꼭 방문할 예정인 19~59세 남녀 600명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응답자가 연구대상지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할 의사가 없다면 그 자료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랜덤성도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50개 동을 추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동에서 12명씩의 응답자들을 지역의 나이와 성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해 유의할당추출(quota sampling)로 선택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자 600명 중 87.8%인 527명이 재차 응답하였다. 1차 조사시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방문 예정시기, 방문 예정기

간, 동반자 유형 및 사회경제적 변수 그리고 각 국립공원의 방문 제한요소들을 질문하였다. 2차 조사시에는 먼저 휴가를 다녀왔는지 질문하였다. 휴가를 다녀왔다면, 1차 조사시에 밝힌 대로 (1) 계획했던 공원을 방문했는지, (2) 계획했던 휴가시기에 다녀왔는지와 (3) 계획했던 휴가기간에 다녀왔는지를 질문하였다. 만약,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계획을 변경해 휴가를 다녀왔다면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휴가를 연기 또는 포기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IV. 결과

전체응답자 527명 중 (1) 제한요소를 극복하여 계획대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하 '미변경집단'이라 한다.)은 209명(39.7%)이었으며, (2) 휴가를 다녀왔지만 방문장소, 시기, 기간 중 하나라도 계획을 변경한 사람(이하 '변경집단'이라 한다.)은 188명(35.7%)이었고, (3) 휴가를 연기 또는 포기(이하 '미방문집단'이라 한다.)한 사람은 130명(24.7%)이었다(그림 1 참조). 이는 예상하였던 결과로, 모든 응답자들이 제한요소를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변경집단, 변경집단, 미방문집단은 Henderson et al.(1995)이 분류한 성취계층, 노력계층, 수동적 계층에 각각 해당한다. 이 세 집단 간의 동반유형, 사회경제적 변수, 방문지 유형 및 제한요소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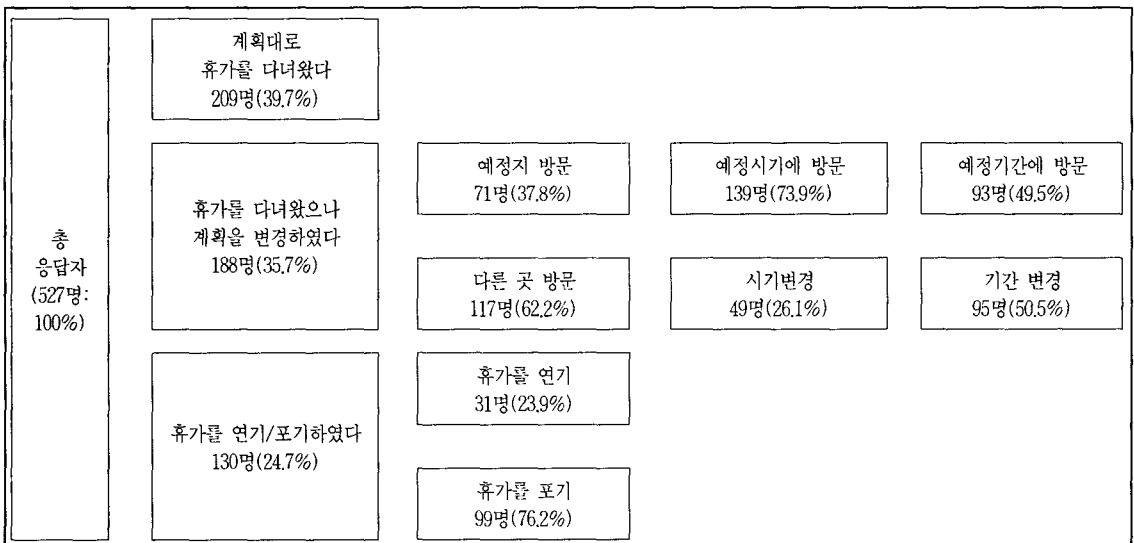


그림 1. 타협전략별 집단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변경집단에서는 동반자가 '가족'인 경우와 '기혼자' 그리고 '3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다. 반면, 나머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방문지의 종류 및 제한요소의 경우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표 1, 2 참조). 국민 대다수가 여름 휴가철에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휴가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

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각 집단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각 대상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제한요소에는 차이가 없었다.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미방문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은 타협전략을 사용해 제한요소를 극복/타협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즉, 모든 집단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구

표 1. 집단 간 변수 차이

(단위: 명)

구분		미변경집단	변경집단	미방문집단	
		빈도(%)	빈도(%)	빈도(%)	
동반자	가족	162(77.5%)	123(65.4%)	79(60.8%)	$\chi^2=13.42$ P=0.009
	친구/애인	39(18.7%)	57(30.3%)	46(35.4%)	
	기타	8(3.8%)	8(4.3%)	5(3.8%)	
결혼 여부	미혼	45(21.5%)	70(37.2%)	47(36.2%)	$\chi^2=13.84$ P=0.001
	기혼	164(78.5%)	118(62.8%)	83(63.8%)	
나이	20대	41(19.6%)	72(38.3%)	48(36.9%)	$\chi^2=20.56$ P=0.002
	30대	69(33.0%)	52(27.7%)	33(25.4%)	
	40대	62(29.6%)	39(20.7%)	33(25.4%)	
	50대	37(17.7%)	25(13.3%)	16(12.3%)	
소득	200만원 이하	44(21.1%)	37(19.7%)	30(23.1%)	$\chi^2=2.90$ P=0.820
	200~300만원 미만	81(38.8%)	64(34.0%)	51(39.2%)	
	300~400만원 미만	61(29.2%)	62(33.0%)	34(26.2%)	
	400만원 이상	23(11.0%)	25(13.3%)	15(11.5%)	
학력	고졸 이하	107(51.2%)	83(44.1%)	69(53.1%)	$\chi^2=3.03$ P=0.219
	대재 이상	102(48.8%)	105(55.9%)	61(46.9%)	
성별	남	100(47.8%)	97(51.6%)	68(52.3%)	$\chi^2=0.83$ P=0.657
	여	109(52.2%)	91(48.4%)	62(47.7%)	
자가용 보유	보유	155(74.2%)	135(71.8%)	85(65.4%)	$\chi^2=3.07$ P=0.216
	미 보유	54(25.8%)	53(28.2%)	45(34.6%)	
방문지	산악형 ^a	140(67.0%)	118(62.8%)	86(66.2%)	$\chi^2=6.21$ P=0.400
	해안형 ^b	48(23.0%)	41(21.8%)	23(17.7%)	
	경주	11(5.3%)	10(5.3%)	10(7.7%)	
	한라산	10(4.8%)	19(10.1%)	11(8.5%)	
응답자 수		209	188	130	

^a: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b: 변산반도, 태안해안.

표 2. 집단 간 제한요소 차이

제한요소 ^a		미변경집단		변경집단		미방문집단		검정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구조적	CON1	3.42	0.66	3.43	0.67	3.40	0.72	P=0.939
	CON2	3.42	0.66	3.41	0.64	3.42	0.70	P=0.991
	CON3	3.49	0.61	3.40	0.67	3.44	0.69	P=0.472
	CON4	3.36	0.79	3.34	0.79	3.35	0.79	P=0.975
개인간	CON5	3.00	0.89	3.06	0.89	2.95	0.98	P=0.554
	CON6	2.61	1.02	2.54	1.07	2.54	0.97	P=0.730
	CON7	3.03	0.81	3.13	0.74	3.01	0.84	P=0.351
	CON8	3.11	0.78	3.14	0.76	3.11	0.87	P=0.878
개인적	CON9	3.52	0.65	3.49	0.66	3.46	0.75	P=0.732
	CON10	2.87	0.78	2.84	0.79	2.87	0.83	P=0.925
	CON11	2.67	0.65	2.65	0.60	2.69	0.65	P=0.850
	CON12	2.38	0.77	2.39	0.80	2.41	0.72	P=0.948
M-construct ^b		3.42	0.59	3.40	0.59	3.40	0.63	P=0.922
M-interpersonal ^c		2.94	0.66	2.97	0.66	2.90	0.71	P=0.698
M-intrapersonal ^d		2.86	0.56	2.84	0.55	2.86	0.58	P=0.950
응답자 수		209		188		130		

^a: CON1: 왕래하기에 교통이 불편해서
 CON2: 적당한 숙박시설을 잡기 어려워서
 CON3: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CON4: 다녀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CON5: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CON6: 어린 아이가 있어서
 CON7: 같이 갈 사람들이 _____국립공원 가기를 싫어해서
 CON8: 같이 갈 사람들과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CON9: 사람들이 많아 혼잡해서
 CON10: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CON11: _____국립공원은 이미 여러 번 다녀와 흥미가 없어서
 CON12: _____국립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부류가 아니어서

^b: 구조적 제한요소의 평균

^c: 개인간 제한요소의 평균

^d: 개인적 제한요소의 평균

조적, 개인간 및 개인적 제한요소의 영향을 받았지만, (1) 미변경집단은 제한요소가 없거나 이를 극복해 계획대로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냈으며, (2) 변경집단은 방문장소, 시기 또는 기간 중 하나를 타협전략으로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지만, (3) 미방문집단은 제한요소

를 극복/타협하지 못해 다녀오지 못했다. Jackson et al.(1993)이 주장하였듯이, “일부 사람들은 예외이지만, 여가참여란 제한요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 제한요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된다”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타협전략의 사용 여부가 공원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집단 간에는 제한요소들의 종류별 강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집단 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미변경집단과 미방문집단에서는 구조적 제한요소가 개인적 및 개인간 제한요소보다 높았으나, 변경집단에서는 구조적, 개인적, 개인간 제한요소 순서이었다(표 3 참조). Crawford et al.(1991)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타협전략의 사용 여부가 대상지의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들은 "개인적, 개인간, 구조적 제한요소가 순서대로 작용하며 그 중요성도 동일한 순서이다. 따라서 여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 제한요소부터 극복되어야 한다"라 하였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응답자를 국립공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였으며, 휴가철을 약 1달을 남기고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즉, 자료수집 시점에서는 (1) 응답자들은 사이에 목적지에 대한 선호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제한요소의 크기가 가장 작았으며, (2) 선호는 의도의 선행변수이며(Woodside and Lysonski, 1989) 휴가 출발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동반자들 사이에는 목적지에 대한 선호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며, (3) 아직 행동(목적지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성된 선호가 참여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한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미방문집단이 휴가를 연기/포기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구조적 제한요소가 다른 두 집단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이어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였다(표 4 참조).

미변경집단의 경우, 2차 조사에서 국립공원 방문을 위해 사용한 타협전략의 종류를 질문하지 않아 알 수는 없었지만, 변경집단에게는 다른 곳 방문 이유, 시기변경 이유, 기간변경 이유 질문해 타협전략을 사용한 이유를 확인하였다(표 4 참조). 구조적 제한요소가 계획변경의 주된 요인으로, 목적지 변경, 시기 및 기간변경 이유의 60%, 73.5%, 75.3%를 각각 차지하였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돈과 시간이 여가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Kay and Jackson, 1991; Jackson and Ruck, 1995),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련 제한요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비용관련 제한요소의

표 3. 집단 내 제한요소의 차이

제한요소 \ 집단	미변경집단	변경집단	미방문집단
구조적	3.42105 ^a	3.39727 ^a	3.40481 ^a
개인간	2.93795 ^b	2.96725 ^b	2.90216 ^b
개인적	2.85781 ^b	2.84059 ^c	2.85529 ^b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이미 대중화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미 소요비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응답자들은 휴가철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간관련 제한요소는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한 집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다. 그 중에서도 응답자의 32.7%(16명)과 기간을 변경한 응답자들의 26.0%(20명)은 바쁜 업무가 이유이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다면 이 제한요소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곳을 방문한 집단의 경우는 시간관련 제한요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는데, 시간관련 제한요소가 방문장소의 변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방문집단은 변경집단 보다 구조적 제한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시간관련 제한요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휴가를 연기한 이유의 72.7%, 포기한 이유의 80.2%를 차지하였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립공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제한요소 이외에 개인적 제한요소와 개인간 제한요소가 존재하며, 제한요소 자체 뿐 아니라 제한요소와의 타협이 목적지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방문의도와 방문 여부를 시간 차이를 두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패널식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24.7%는 여름 휴가를 연기/포기하였지만, 39.7%는 계획대로 예정한 국립공원을 다녀왔으며, 35.7%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했지만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세 집단 간 제한요소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Jackson

표 4. 변경집단의 계획변경 이유와 미방문집단의 연기/포기 이유

제한요소	이유	변경집단			미방문집단	
		다른 곳 방문이유*	시기변경 이유	기간변경 이유*	연기 이유*	포기 이유*
시간 관련	갈 시간이 없어서				2	8
	휴가 기간이 짧아서	8		5		3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9				
	업무가 바빠서	4	16	20	19	54
	집안에 일이 생겨서	4	2	5	3	12
	회사에서 일정을 변경해서		7			
	해외여행이라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	3		
	휴가 일정이 변경되어서 (해외에서) 손님이 오셔서		4	12		
회사 직원과 휴가 일정을 바꿔서		1	1			
추석 때 가기로 해서	1					
소계		26(21.7%)	33(67.3%)	47(61.0%)	24(72.7%)	77(80.2%)
구조적	돈 관련	갈 돈이 없어서				2
		비용이 너무 비싸서			1	2
		경기가 안 좋아서			1	1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8		1	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	1				
소계		10(8.3%)	1(2.0%)	3(3.9%)	2(6.1%)	10(10.4%)
거리 관련	교통이 불편해서	5				
	거리가 멀어서	14	1			
	소계	19(15.8%)	1(2.0%)			
장소 관련	예약이 힘들어서	2		1		
	즐길만한 시설이 없어서			1		
	숙소를 정하지 못해서	5	1			
	숙박시설이 없어서			1		
소계		7(5.8%)	1(2.0%)	3(3.9%)		
날씨 관련	비가 많이 와서	9		5	1	4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1				
	소계	10(8.3%)		5(6.5%)	1(3.0%)	4(4.2%)
계		72(60.0%)	36(73.5%)	58(75.3%)	27(81.9%)	91(94.8%)
개인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1				
	같이 갈 사람과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5	12	5	3	3
	같이 갈 사람이 싫어해서	15				
	아이가 있어서	3		2		
	같이 간 사람과 맞추기 위해	2	1	2		
	일행 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1				
계		27(22.5%)	13(26.5%)	9(11.7%)	3(9.1%)	3(3.1%)
개인적	사람들이 많아 복잡해서	1				1
	몸이 좋지 않아서			3	2	
	흥미가 떨어져서			2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이 오지 않으므로	3		2		
	가족이 편찮아서	1		1	1	1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친척집)	9		2		
	볼 일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감	7				
계		21(17.5%)		10(13.0%)	3(9.1%)	2(2.1%)
총계		120(100 %)	49(100%)	77(100 %)	33(100 %)	96(100 %)

*: 복수응답임.

et al.(1993)이 주장한 “일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가 참여는 제한요소의 유무보다 제한요소와의 타협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Henderson et al.(1995)의 집단 구분과 동일한 것이어서, 여가분야에서 발전해 온 제한요소 관련 이론들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방문행동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류된 세 집단 간에는 동반자 유형, 결혼 여부, 나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사회경제적 변수 및 방문지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름 휴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가족단위의 피서 추세가 반영된 결과이다. 집단 간에서는 종류별 제한요소의 인지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집단 내에서는 세 집단 모두 구조적 제한요소가 개인적 및 개인간 제한요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구조적 제한요소 중에서도 시간관련 제한요소의 영향력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료수집의 시점이 여름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이미 특정 목적지에 대한 선호와 방문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즉, 개인간 및 개인적 제한요소는 이미 상당부분 극복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에서도 3가지 제한요소가 관광에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한 것은 최근이며, 제한요소와의 타협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요소 및 타협전략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를 밝힘으로써, 제한요소 관련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변경집단에게 3가지 타협전략(목적지 변경, 기간변경 및 시기변경)을 제시한 후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를 질문하였지만, 미변경집단에게는 사용한 타협전략의 종류를 질문하지 않았다. 타협전략 연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전략을 일부 문헌에 근거해 제시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변경집단 뿐 아니라 미변경집단이 사용한 타협전략의 종류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변경집단은 전체응답자의 40%를 차지하는 집단이며 제한요소를 훌륭히 극복한 집단이

서 특정 국립공원의 표적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변경집단의 타협전략뿐 아니라 이 집단을 세분할 수 있는 변수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 공원별로 이 집단을 세분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각 공원의 관리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계층의 이용자들을 집중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적용된 국립공원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요소만이 방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다. Hubbard and Mannell(2001)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타협전략뿐 아니라 동기는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동기뿐 아니라 충성도(loyalty)와 관여도(invovlement)는 방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변수이다.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high involvement product)이며, 주제공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충성도가 방문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검증되었다(홍성권, 1998). 셋째, 본 연구는 응답자를 국립공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수행된다면 제한요소나 타협전략에 대한 연구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용문헌

1. 홍성권(1998) 주제공원 이용자의 시장세분화를 위한 '충성도'의 사용가능성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26(1): 1-11.
2. Ankomah, P. K., J. L. Crompton, and D. Baker(1996) Influence of Cognitive Distance in Vacation Choi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138-150.
3. Botha, C., J. L. Crompton, and S. Kim(1999). Developing a Revised Competitive Position for Sun/Lost City, South Afric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341-352.
4. Crawford, D. W., and G. Godbey(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5. Crawford, D. W., E. L. Jackson, and G. Godbey(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6. Francken, D. A., and W. F. van Raaij(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337-352.
7. Henderson, K. A., D. Stalnaker, and G. Taylor(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69-80.
8. Henderson, K. A., L. A. Bedini, L. Hecht, and R. Schuller(1995)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 Ne-

- 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14: 17-31.
9. Hubbard, J., and R. C. Mannell(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145-163.
 10.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55-70.
 11. Jackson, E. L., D. W. Crawford, and G. Godbey(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12. Jackson, E. L., and M. S. Searle(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cepts and Models, *Loisir et Societé* 8: 693-707.
 13. Jackson, E. L., and V. C. Rucks(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5.
 14. Kay, T., and G. Jackson(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01-313.
 15. Pennington-Gray, L. A., and D. L. Kerstetter(2002) Testing a Constraints Model within the Context of Nature-Based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 416-423.
 16. Samdahl, D. M. and N. Jekubovich(1993) Constraints and Constraint Negotiation in Common Daily Living,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Manitoba.
 17. Shaw, S. M., A. Bonen, and J. F. McCabe(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86-300.
 18. Tian, S., J. L. Crompton, and P. A. Witt(1996) Integrating Constraints and Benefits to Identify Responsive Target Markets for Museum Attr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34-45.
 19. Um, S., and J. L. Crompton(1992) The Roles of Perceived Inhibitors and Facilitators in Pleasure Travel Destination Decis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3): 18-25.
 20. Woodside, A. G., and S. Lysonski(1989) A General Model of Traveler Destination Choi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4): 8-14.
 21. <http://www.npa.or.kr>

원 고 접 수 : 2003년 7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9월 14일

3인익명 심사필